

# 중화민족 한가족, 재장춘 여러 민족이 함께한 합동세배회



행사에 참석한 지도자들과 여러 소수민족 대표들



축사를 하고 있는 길림성조선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제 11기 리사회 오장권 회장

1월 18일, 새해를 맞아 길림성조선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는 장춘에서 '2025년 새봄맞이 합동세배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세배회는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길림성사회조직원국 등 관련 부문의 관심과 지도 아래 사회각계의 지도일군, 귀빈 및 여러 민족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격양된 노래 〈조국을 노래하다〉로 행사의 막을 올린 가운데 레빈들은 기립하여 조국에 대한 아름다운 축원을 함께 노래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족외에도 몽골족, 만족, 시버족, 회

족 등 여러 소수민족 대표들도 참석하여 함께 중화민족의 전통 명절을 경축함으로써 중화민족 한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 또 장춘시의 여러 민족단체 및 교육기구에서 온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진흥총회 오장권 회장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지난 한해 동안 제 11기 리사회는 시중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목표로 〈사회조직규정〉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총회의 자률능력과 규범화 관리수준을 한층 더 제고시켰다. 특히 2024년 을력설 전야에 성민족사무위원회와 함께 연변의 안도현 석문진 경성촌을 방문해 촌민들에게 밀가루, 콩기름, 해산물 등 위문품을 제공하고 의료문화화향 위문활동을 조직해 약품, 도서, 전통식품, 텐트시설 등을 기증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동포사회에 도움과 사랑을 선사했다. 또 지난해 7월과 12월에는 길림대학 제 1, 제 2, 제 3병원의 전문의와 수십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위문단을 조직해 공주령시 선봉촌과 반석시 치부촌을 찾아 제 40차, 제 41차 의료문화화향 위문활동을 전개했는데 무상 진료 봉사는 물론 약품, 문화오락기재, 도서, 전통식품 등을 기증했다. 행사에서는 우수회원과 최우수공의

단체를 표창했다. 올해의 '공익활동단체상'은 총회 의료팀과 사회문화팀이 수상했다. '우수회원상'은 립펑주 등 10명에게 수여되었다.

이번 합동세배회는 재장춘 조선족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여러 민족의 단결과 우애의 무대이기도 했다. 여러 소수민족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력설을 경축하고 모두들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예공연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간의 이해와 우정을 증진했다.

합동세배회에서 여러 민족이 선보인 일련의 특색 있는 문예공연은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장춘시민족문화축진회의 만족 가수 리명준이 열창한 〈나와 나의 조국〉으로부터 장춘시선자무용학교의 중국무용 〈소막차 (苏幕遮)〉, 몽골족 가수 효영이 부른 〈사랑하는 당에〉와 〈천년〉 등 종목들은 여러 민족의 매력을 보여주었고 여러 민족간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시켰다. 특히 장춘시조선족중예술관에서 선보인 무용 〈환고신시대〉는 행사장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오회장은 또 "진흥총회 제 11기 리사회가 곧 소임을 다하고 저의 회장 임기도 마무리되지만 차기 리사회를 통해 민족단결의 가치를 높이 들고 건강하고 성숙한 민족단체로 거듭날 것"이

라며 전체 회원들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고 더욱 빛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지난 3년간 총회는 장춘시 조선족전문문화축제, '팔순로인 축수식' 등에 적극 참가해 민족전문문화를 고양했으며 룡정, 길림, 단둥, 대련, 청도 등지에 가서 일련의 문화교류와 탐방 활동을 전개하여 부동한 민족문화간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촉진했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제 11기 리사회는 〈길림성사회조직규범화건설조작규정〉과 성사회조직원국의 규정 요구에 따라 일상관리사업에 중시를 돌리고 기반사업을 끊임없이 보완했다. 여러 차례 리사회회와 회원총회, 립시사회 회의 등을 통해 인사 임명이나 주요 행사 결정 등 중요한 결의안의 민주적 협의와 표결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총회는 정부 관련 부문의 관계 유지에 중시를 돌리고 주동적으로 감독과 지도를 받았으며 밀접한 소통과 관계를 유지해 강력한 사업 지도와 지지를 얻었다. 동시에 총회는 성민족사무위원회와 협의를 받아 '소수민족발전자금'의 관리와 사용을 책임지고 조율하였으며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했다.

/글 오건기자 /사진 정현관 김명준 기자



## 장춘시, 3 갈래 쾌속버스 개통

최근, 쾌속버스 로선망 계획에 따라 장춘시는 남부, 서부와 아태거리 등 로선에 3갈래 쾌속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3갈래 쾌속버스는 장춘시의 궤도교통이 보급되지 않는 구역에 대한 초보적인 쾌속버스 운영 망을 형성했다.

로선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된 3갈래 쾌속버스 로선은 전체 구간에서 모두 버스 전용 도로를 개설했고 7:00-9:00, 16:00-19:00 등 시간대에는 버스 전용 도로로 전문 관리, 운영하고 있다. 첫차와 막차의 발차 시간은 각각 5:30과 21:45로 궤도교통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궤도철차역과의 거리를 약 50미터로 통제하여 시민들의 빠른 출행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한다.

서부 쾌속버스 75번은 중철박람성에서 출발하여 전진거리, 연안거리를 경유하고 조양구제 2중의병원에 도착하며 궤도 3호선, 6호선과 연결된다. 전체 구간은 17킬로미터, 배차 20대, 첫차, 막차 시간은 5:30, 21:45, 차 간격은 6~15분이다. 이 로선은 총 47개의 주택단지, 6개의 병원, 6개의 공원복지, 13개의 학교 및 50여개의 기업사업단위를 경유하며 중철박람성에서 흥기거리 등 구역까지의 이동 수요를 만족시킨다.

아태거리 쾌속버스 76번은 남 4환 (南四环)에서 출발하여 아태거리를 경유하고 123중학교에 도착하며 궤도 2, 3, 4, 8호선과 연결된다.

전체 구간은 18킬로미터, 배차 25대, 첫차, 막차 시간은 5:30, 21:45, 차 간격은 5~10분이다. 이 로선은 총 75개의 주택단지, 8개의 공원복지, 17개의 학교 및 80여개의 기업사업단위를 경유하며 도시의 중부에서 남북방향의 이동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남부 쾌속버스 78번은 정월담공원 정문에서 출발하여 정월거리, 박학로, 남환성로, 초범거리를 경유하여 성남대로에 도착하며 77번 버스, 궤도 1, 3, 4, 6호선과 연결된다. 전체 구간은 25킬로미터, 배차 35대, 첫차, 막차 시간은 5:30, 21:40, 차 간격은 5~10분이다. 이는 장춘 남부에 개설한, 처음으로 동서방향을 관통하는 장거리 로선으로 고신구와 정월구의 버스 연결을 해결한 동시에 정월구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빠른 출행 통로를 더 추가한 셈이다.

이외, 장춘시는 12미터, 10미터 등 부동한 차종을 포함한 중국제 1차량차 버스 300대를 집중적으로 갱신하였는데 이미 77번, 185번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버스 이동에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승차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은 버스 봉사 품질 향상 3개년 난관과행동의 총결의 해로 장춘시는 버스로선망 배치를 일층 최적화하고 봉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쥐어 시민들의 버스 이동 수요를 보장하고 있다.

/도시석간

## 연길로 인뢰봉반

### 마반산촌에서 렬사유가족 위문

1월 19일, 을사년 을력설을 맞아 연길로 인뢰봉반은 도문시 장안진 마반산촌을 찾아 렬사유가족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하며 '사랑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일행은 우선 촌 당지부 서기 무영성 (武永成)과 부기원 김금자, 촌 로인협회 회장 차은숙의 안내하에 제 6촌민소조에 사는 남창송 (75세)의 집을 찾았다. 그의 삼촌 남정일은 항미원조전쟁에서 희생된 렬사이다. "남창송은 촌에서 나서자랐고 일찍 촌에서 부기원을 맡아하며 마을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현재 건강 상황이 좋지 않은 안해를 돌보고 있다."고 무서기는 소개했다. 남창송은 렬사 삼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일가의 행복이 선행들의 목숨으로 바뀐 것이기에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조직에 연신 감사를 드렸다.

이어 일행은 섬마을로 불리는 제 4촌민소조에 사는 김찬일 (75세)의 집을 찾았다. 김찬일의 삼촌 김재준도 이 마을에서 참군하여 항미원조전쟁에서 희생된 렬사이다. 소사양 전문도였던 김찬일은 3년전 중풍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아들이 소를 기르며 부모를 보살피고 있다.



연길로 인뢰봉반 로인들은 행복한 로후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준 선행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 희생된 렬사의 유가족들을 잘 보살피드려야 한다며 두 집에 각각 현금 1,000원씩 전달했다.

무영성 서기는 "이 두 렬사유가족은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대상인데 로 인뢰봉반에서 설을 맞아 이렇게 도와주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하고 나서 마반촌혁명렬사기념비에 세겨진 14명 렬사들의 사적을 소개했다.

이날 위문행사에 참가한 료봉반 자원봉사자 김희숙은 아버지와 삼촌, 오빠 가족 세분이 항미원조전쟁에서 희생된 유가족이고 장계분은 연변의 항일명장 체세룡의 후제이다. /박철원특약기자

## 북산가두, 새봄맞이 경축대회 개최

1월 13일, 연길시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과 연변변경관리지대, 연변주소방구조지대는 공동으로 새봄맞이 경축대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주 및 연길시 관련 지도자, 주둔부대, 연변변경관리지대, 연변주소방구조지대, 연변대학, 애성유치원 등 단위들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조국을 노래하다〉,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의 우렁찬 노래소리로 막을 올렸다.

이날 행사는 우리의 조국과 고향, 사회구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고 '네가지 공동'과 '다섯가지 동질감'을 증강하도록 인도했다. 무용 〈꿈을 쫓는 새로운 로정〉은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동경을 보여주었고 조국에 대한 사랑



과 헌신을 표현했다. 사랑송 〈중화민족 일가친〉과 무용 〈우리 고향의 아름다움〉은 민족단결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전달하고 군인과 경찰의 융합 발전을 구가하였으며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깊은 우정을 표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여러 민족 대중들의 교류를 심화하고 사회구역 문화사업의 번영발전을 추진하며 민족 단결을 추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리성복특약기자

## 장진호전투 승리 74주년, 잊지 못할 기억

○김화빈 (길림양정주간부학원 교수연구부 부주임)

74년전의 1950년 12월 24일은 항미원조전쟁중 가장 참혹한 전투였던 장진호전투에서 승리한 날이다. 장진호전투는 렬사상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전투로 기억된다. 이 전투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렬악한 환경에서 강철의 의지와 용감무쌍한 투쟁정신으로 굶주림과 추위를 극복하고 미군 주력부대를 격파했다.

1950년 지원군은 침략에 반항하고 조국을 보위하자는 정의로운 구호를 웨치며 중화민족의 기대와 전국 인민의 중탁을 짊어지고 압록강을 건너 항미원조전쟁에 나섰다. 2년 9개월 동안 조선인민군과 함께 외래 침략자들에 대항하며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싸워 이김으로써 항미원조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위대한 승리는 정의와 강권, 공리와 패륜, 진보와 후퇴의 치렬한 충돌과 대결이었으며 침략과 패권주의에 반항하는 중화민족의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장진호전투는 항미원조전쟁 제 2차 전역에서 발생했다.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원군 제 9병단 3개 군과 미군 제 10군은 조

선 장진호지역에서 맞붙었는데 지원군은 적들의 강한 포격에도 포기하지 않고 역세게 싸워 이김으로써 항미원조전쟁에서 처음으로 미군 1개 탄을 전멸시키는 기록을 세웠다. 전투는 주로 장진호 동서 양안의 신홍리, 류담리, 남쪽의 하갈우에서 전개되었는데 하갈우리는 미군이 남쪽으로 철수하여 보급받는 중추였다. 그 외곽의 동쪽 고지에 양근사가 거느린 지원군 한개 련이 주둔하고 있었다. 양근사는 1071.1 고지 동남쪽에 있는 작은 고지에서 패의 방벽을 지휘하여 미군의 공격을 8차례나 물리쳤다. 그러나 식량과 탄약이 다 떨어지고 두명의 부상자만 남은 상황에서 미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자 양근사는 결연히 폭파통을 들고 공격해오는 미군들 속으로 뛰어들어 장렬히 자폭했다. 특히 미군 육군의 자랑이었던 7사단 31탄 '북극곰단'은 신홍리전투에서 단장이 사망하고 기발을 빼앗기는 등 최종적으로 전군이 전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해병대 기병 1사단도 파멸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지원군에도 중대한 희생이 따랐다. 이번 전투에서 동상을 입은 전사는 3만여명에 달했고 사망자수는 4천여명에 달했다. 렬하 40도 혹한의 환경에서 '얼음조각중대'는 미군의 남쪽 도주를 저격하려고 깊숙이 매복해있었는데 여전히 전투 자세를 유지한 채 희생되는 전사들이 많았다. 1950년 12월 24일, 장진호전투의 승리는 '성탄절전에 전쟁을 끝내자'는 미군의 어리석은 망언을 깨뜨렸고 그후로 더는 '성탄절에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원군의 모습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전투후에도 미군을 위주로 한 '유엔군'은 더 이상 38선을 넘어서지 못했고 전쟁의 형세는 완전히 뒤바뀌어 최종적인 정전협상을 위해 승리의 기반을 다져놓았다.

장진호전투는 지원군이 미군을 위주로 한 '유엔군'과 전면적으로 맞붙은 전투이고 1840년이래 지원군을 세계에 널리 알린 전투였다. 이번 전투는 새 중국이 국제무대로 나아가는 계기로 되었고 미국을 위주로 하는 서방 국가들은 처음으로 새 중국을 정시하기 시작했다. 장진호전투와 상강령전

투를 대표로 하는 항미원조전쟁은 처음으로 새 중국의 대국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전략적으로 새 중국의 국가 안전을 수호했다.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는 중조 량국 인민의 승리의 승리이며 전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인민의 공동 승리로서 인민전쟁의 거대한 위력을 과시하고 과감히 투쟁하고 과감히 승리하는 인민들의 혁명정신을 분발시켰는바 중대한 국제적 의의와 심원한 렬사적 의의가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작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우리는 항미원조전쟁의 간고한 로정과 위대한 승리를 명기하고 위대한 항미원조 정신을 고양하며 씩씩하고 드높은 기세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향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위대한 항미원조 정신을 한층 더 발양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분투하고 용감히 전진해야 한다.